

안철수, 총선 개입 않고 대선 직행 가능성 비쳐

27일 서울대 강연서 구상 암시... 안철수 테마주 상한가

총선을 보름 앞두고 열렸던 27일 안철수(사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대 강연은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한 그의 구상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단서들이 쏟아진 자리였다. 그는 “정치를 하게 된다면”이란 가상의 상황까지 거론하면서 “보수든 진보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집권한다”는 대선 해법까지 내놨다. 당장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28일 안철수연구소는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8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월 2일 이후 첫 상한가다. 2월 이후 금융 당국이



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했던 안 원장으로서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과의 ‘코드’ 맞추기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자신이 힘을 보태

총선 승리에 기여한다고 해도 “안철수 때문에 이겼다”는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안 원장의 위치 변화다. 안 원장은 “보수든 진보든 문제를 풀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며 ‘중도·무당파적’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확장성을 반대한다”던 말과는 괴리가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야권연대로 좌클릭 경향이 강화되면서 비어 버린 중원 공약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도 최소한 ‘편지 응원’ 정도는 해 줄 거란 기대를 했던 민주당당은 다소 당황하는 표정이었으나 대선 전략상 길게 보면 나쁠 것 없다는 말도 나왔다. 안 원장의 중도 장악력이 커지면 문재인 상임고문과는 상호보완 관계인 ‘페이스메이커’ 구도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권을 생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양은 여야 모두를 비관했지만 결국 총선 때 야당을 도우려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안철수 사진 써도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총선 후보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 후보가 안철수 원장을 거론한 문구나 사진을 현수막이나 명함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양원보·김수연 기자 wonbosy@joongang.co.kr

지난해 여권 비판, 이번엔 야당까지 야권 좌클릭에 중도층 공약 자신감

새누리 “결국 야당 돕는 것 아닌가” 민주당 문재인과 페이스메이커 기대

조사에 나서면서 정치테마주들은 한동안 큰 출렁임이 없었다.

안 원장은 “지금 시점에선(대선 출마는) 너무 빠른 얘기”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역설적으로 ‘총선 불개입’ 의사를 드러내면서 대선 직행 가능성은 더욱 부각된 셈이다. “정치를 하게 되면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겠다” “보수든 진보든 문제를 풀라고 권을 줬더니 그게 자기 것인 양 싸우기만 한다”며 이 시점에서 여야를 싸잡아 비판한 건 총선 전 선택을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원장 주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총선 개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완전히 건너뛰지, 야권의 일부 후보만 지지할지, 진영 전체를 지지할지를 저울질했다는 것이다. 결국 고민의 결론은 ‘총선 불개입’으로 정리된 인상이다.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정치지형 변화가 요인

순위	당명
1	새누리당
2	민주통합당
3	자유선진당
4	통합진보당
5	창조한국당
6	국민생각
7	가짜대국민중심당
8	친박연합
9	국민행복당
10	기독교당
11	녹색당
12	대한국당
13	미래연합
14	불교연합당
15	정통민주당
16	진보신당
17	청년당
18	한국기독교당
19	한국문화예술당
20	한나라당

31.2cm 비례대표 투표지 역대 최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역대 최장(31.2cm)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선관위는 이 대형 투표용지를 개표할 수 있는 신형 개표기가 모자라 개표 업무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93억원 예산 들였지만 재외국민투표 첫날 썰렁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19대 총선)가 28일 시작했다.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 107개국 158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비례대표 선출에 반영되는 정당 지지 투표만 가능하다.

28일 베이징(北京) 주중 대사관 1층에 마련된 재외국민 투표소. 오전 8시부터 시작된 투표에는 5분에 한 명 정도로 투표자의 발길이 뜸했다. 이날 하루 투표자는 181명. 이번 선거를 위해 등록된 베이징 주재 한국교민(6357명)의 0.03%에 불과했다. 그러나 투표 참가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김선혜(22·베이징공업대 교환학생)씨는 “생애 첫 참정권 행사를 외국에서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최광순 선거관은 “주말이 되면 투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후쿠오카 등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는 10곳에서 투표가 실시됐다. 첫날에만 등록자 1만8628명 중 1435명(7.7%)이 투표를 마쳤다. 일본에는 2011년 말 현재 59만1998명의 재외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세 이상의 유권자는 46만2500여 명이다.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들어간 국가 예산은 지난해 준비 비용으로 사용한 8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93억원이다. 국내 총선 비용(2713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재외국민 전체 유권자 223만여 명 가운데 총선 때 투표를 하겠다고 선거인으로 등록한 숫자가 12만3571명(5.53%)에 불과해 1인당 비용은 23만7110원에 이른다. 국내 유권자(3885만명) 1인당 6983원에 비해 비용이 34배다.

베이징·도쿄·최형규·서승욱 특파원
chkcy@joongang.co.kr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0시, 새누리당 송파구 병에 출마한 김을동 후보(왼쪽 사진 오른쪽)와 이해훈 종합상황실장이 거여역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합당 서울 중구에 출마한 정호준 후보(오른쪽 사진 왼쪽)와 손학규 상임고문이 동대문의류소림을 앞에서 박수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뉴스1]

UEFA Champions League Final Munich 2012

가자! 유럽을 열광시킨 포드 포커스 타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FORD Drive to Win

기간: 3월 26일 ~ 4월 29일(5월 19일 결승전)
 혜택: UEFA 챔피언스리그 관람권 외 (퍼스트클래스 매치티켓 + 4박5일 숙박권 + 왕복항공권) 갤럭시 노트, 아디다스 피날레 원형 미니볼, 포드 포커스 주말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 혜택 제공
 방법: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m.ford-event.com) 하여 사승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전시장에 방문하여 포커스, 토라스 시승 후 응모
 *자세한 내용은 전시장에 문의하십시오.

FOCUS 특별 금융 프로그램
월 136,000원 부터 (36개월 우대리스, 선수금 30%, 유예율 65%)

신사 3444-1300	삼성 3442-2300	서초 535-3800	송파(임시) 6928-3000
강북 2246-2100	강서 2063-6300	분당 714-2004	일산 913-2200
수원 221-7600	인천 832-0001	원주 762-0040	대전 823-2000
전주 273-0005	광주 515-1010	대구 766-2000	부산수영 758-0075
부산해운대 741-5114			

ford-korea.com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080-300-3673, 02517-4357 전국 24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포커스: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15kg 지동6단 자동변속기 13.5km/l 2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3g/km ▶토라스: 배기량 3496cc 공차중량 1900kg 지동6단 자동변속기 8.5 km/l (도상연비: 7.4 km/l, 고속도로연비: 10.6 km/l) 5등급 복합 CO2 배출량 210g/km ※유연변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